

보도시점 2025. 4. 8.(화) 12:00
(2025. 4. 9.(수) 조간)

배포 2025. 4. 8.(화) 09:00

결제사기(스미싱) 문자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안심 디지털 이용환경을 만든다.

- 민관 협력으로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X-ray) 시범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24.11월)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 도입 전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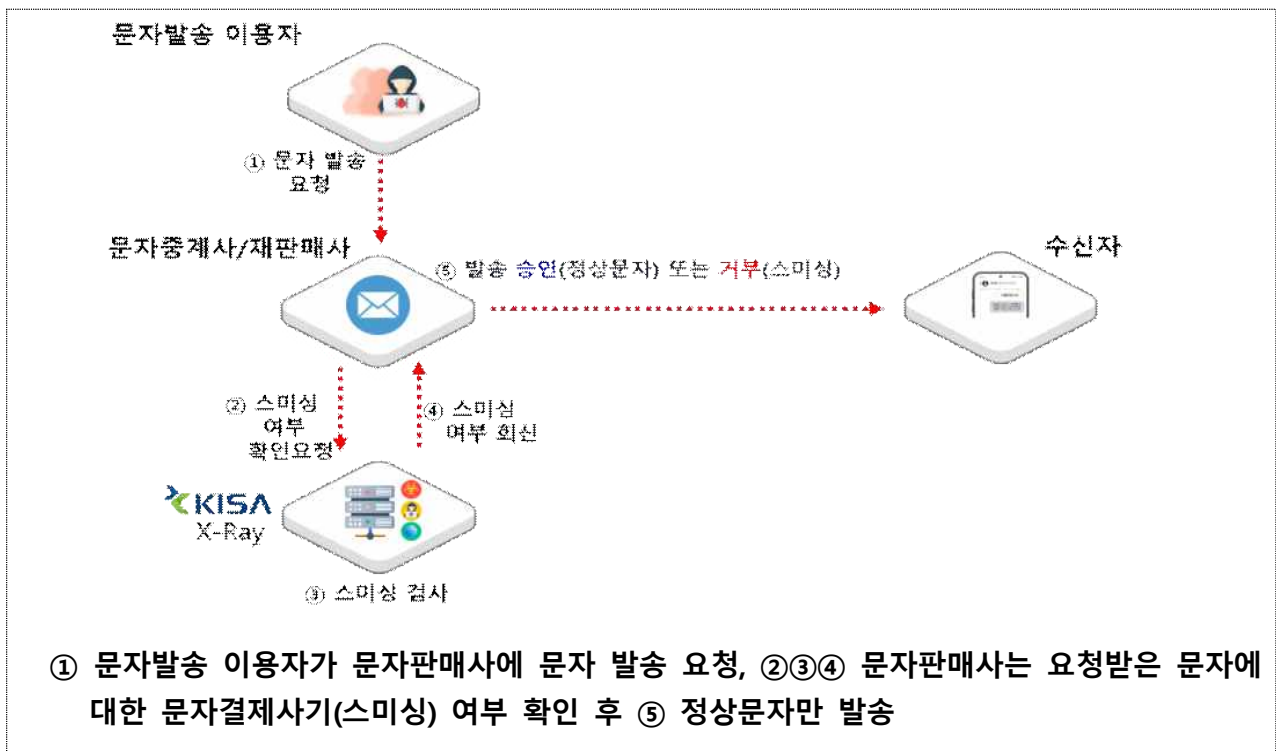
현재 대응체계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 도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문자 대량 발송 후 이를 수신한 수신자가 악성문자로 의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민감정보 유출 및 재산 피해발생 ○ 악성문자 발신번호 및 인터넷주소(URL)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문자 발송 단계에서 차단 ※ 악성문자 발송 단계 차단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가능 ○ 악성문자 발신번호 및 인터넷 주소(URL) 차단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되어 이를 수신한 모든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악성 문자 사전 차단(X-ray)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문자판매사 (주)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기로 하였다.

<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X-Ray) 개념도 >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문자 사전 차단 (X-ray)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 (스미싱) 등 악성문자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X-ray)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최광기	(044-202-6460)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	책임자	단 장	이동연	(02-405-490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405-4940)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지척브리핑

